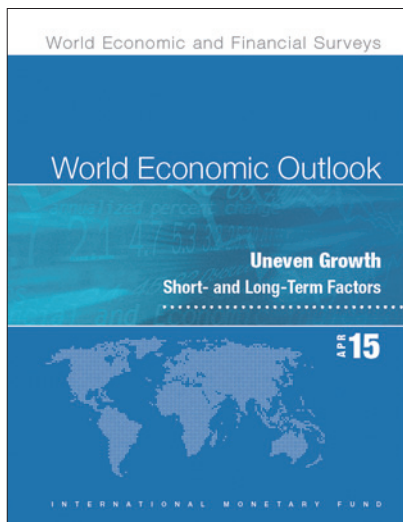


# IMF, 세계경제전망 브리핑

국제통화기금, 2015. 4



World Economic Outlook :  
Uneven Growth,  
Short- and Long-  
Term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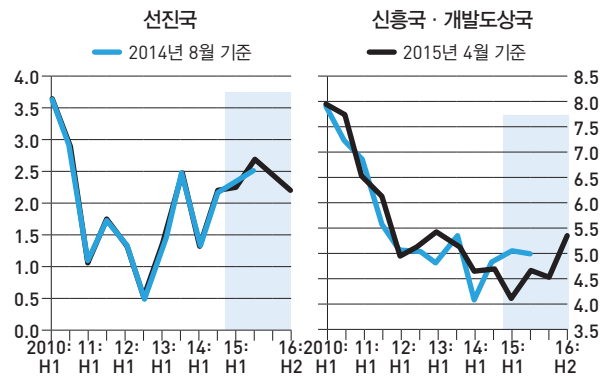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 1. 개요

IMF는 2015년 4월, 2015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본 글은 이때 발표된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올해 세계의 경제 전망과 주요 요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 몇년간 빠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던 신흥국의 경제가 4.6%에서 4.3%로 둔화하는 반면, 경제 침체를 겪던 선진국들의 경기는 1.8%에서 2.4%로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면에 선진국과 신흥도상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림1 선진국과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Uneven Growth Short- and Long-Term Factors, p.3

## 2.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 ■ 인구의 고령화

이러한 경제 전망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신흥국에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 낮은 자본 축적률과 낮은 생산성과 결합하여 이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선진국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지속하여 둔화시키는 장기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둘째로 2010년 금융위기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로 위기로 인한 막대한 투자 감소도 전 세계의 잠재적 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의 여파로 전 세계 국가의 부채가 높아지고 은행 환경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오늘날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건전성 향상 등으로 여러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이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의 가장 큰 원인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율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 가계, 은행, 기업 중 적어도 한 부문 이상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IMF는 전 세계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위협 요인을 높은 부채율로 보고 각 국가들이 이런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 국제 유가 상승

반면, 국제 유가가 작년 대비 약 45%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연히 이득을 보는 국가는 산유수입국들로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유가 하락으로 비용 절감에 따른 수입 증가와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산유수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유국은 튼튼한 재무구조와 유가 하락에 대비한 정책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좋은 소식

그림2 세계경제전망 브리프 현장



자료 : Prokerala.com

이라 판단하고 있고 석유 수출국과 수입국의 차이를 재분배 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 ■ 미국 달러 가치의 상승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최근 미국 달러가 25%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엔화와 유로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최근 고전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유로를 국제 통화로 사용하는 신흥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의 상승이 미국의 내수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로금리 정책의 탈출 전략을 미루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세계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3.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과 정책 제언

주요 대국의 경제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은 앞의 요인들과 더불어 실질 임금 상승률 정체, 에너지 관련 투자 부진으로 2015년 성장률이 3.1%로 0.5%p 하향 조정되었다. 반면 유로지역은 양적 완화와 유로화의 가치 하락으로 0.3% 향상된 1.5%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일본은 0.4% 향상된 1.0%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6.8%로 작년 7.4%에 대비하여 대폭 낮아졌지만, 이는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2015년 경제 성장률도 7.5%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브라질은 -1.0%, 러시아는 -3.8%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였다.

IMF는 신흥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인프라 부족 해소, 무역과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비즈니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과 노동시장 개편 등을 통해 노동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림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경제성장 전망

**Latest IMF projections**  
Global recovery continues, but it is moderate and uneven.  
(percent change)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15 WEO update <sup>1</sup>	
	2013	2014	2015	2016	2015	2016
<b>World Output</b>	3.4	3.4	3.5	3.8	0.0	0.1
<b>Advanced Economies</b>	1.4	1.8	2.4	2.4	0.0	0.0
United States	2.2	2.4	3.1	3.1	-0.5	-0.2
Euro Area	-0.5	0.9	1.5	1.6	0.3	0.2
Germany	0.2	1.6	1.6	1.7	0.3	0.2
France	0.3	0.4	1.2	1.5	0.3	0.2
Italy	-1.7	-0.4	0.5	1.1	0.1	0.3
Spain	-1.2	1.4	2.5	2.0	0.5	0.2
Japan	1.6	-0.1	1.0	1.2	0.4	0.4
United Kingdom	1.7	2.6	2.7	2.3	0.0	-0.1
Canada	2.0	2.5	2.2	2.0	-0.1	-0.1
Other Advanced Economies	2.2	2.8	2.8	3.1	-0.2	-0.1
<b>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b>	5.0	4.6	4.3	4.7	0.0	0.0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2	1.0	-2.6	0.3	-1.2	-0.5
Russia	1.3	0.6	-3.8	-1.1	-0.8	-0.1
Excluding Russia	4.2	1.9	0.4	3.2	-2.0	-1.2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7.0	6.8	6.6	6.4	0.2	0.2
China	7.8	7.4	6.8	6.3	0.0	0.0
India	6.9	7.2	7.5	7.5	1.2	1.0
ASEAN-5 <sup>2</sup>	5.2	4.6	5.2	5.3	0.0	0.0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2.9	2.8	2.9	3.2	0.0	0.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9	1.3	0.9	2.0	-0.4	-0.3
Brazil	2.7	0.1	-1.0	1.0	-1.3	-0.5
Mexico	1.4	2.1	3.0	3.3	-0.2	-0.2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2.4	2.6	2.9	3.8	-0.4	-0.1
Saudi Arabia	2.7	3.6	3.0	2.7	0.2	0.0
Sub-Saharan Africa	5.2	5.0	4.5	5.1	-0.4	-0.1
Nigeria	5.4	6.3	4.8	5.0	0.0	-0.2
South Africa	2.2	1.5	2.0	2.1	-0.1	-0.4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5.  
<sup>1</sup>Difference based on rounded figures.  
<sup>2</sup>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자료 :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Uneven Growth Short- and Long-Term Factors, p.2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 권고사항은 국가별로 경제적 여건이 달라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우선,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통화 정책은 알맞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인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 향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 통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현상으로 보고 현존하는 국제통화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유가 하락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소 의미를 의미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프라 투자 확대와 경제 구조의 혁신이 신중하게 지속한다면 세계 경제는 지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